



[낙농경영] 美 낙농업계,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 심각

- 젖소 유실, 원유 폐기 등 피해 막심



미국 북동부 지역에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낙농가들의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뉴저지에서 가장 큰 목장이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으며 약 300마리에 달하는 젖소가 잔해 속에 묻히고 대형 사일로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전력망이 끊겨 원유 냉각기를 가동하지 못해 원유를 폐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발전기를 이용해 착유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도움 받아 잔해를 치우고 있으나 시설 재건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무부(USDA)는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협력해 피해규모 파악에 나섰으며 피해 복구는 물론 재난구호 기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dairyherd.com, 9월 3일자 >

[마케팅] 英, 유제품 영양 효능 강조한 'Eat Balanced' 캠페인 재개

- 균형 잡힌 식단에서 유제품과 육류 섭취의 중요성 강조



영국에서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유제품과 육류의 꾸준한 섭취를 권장코자 추진되었던 'Eat Balanced' 캠페인이 재개되었다.

낙농·육류업계가 농업원예개발공사(AHDB)와 협력해 최초로 선보인 이 캠페인은 TV 광고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계속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에서 유제품과 육류의 영양학적 효능을 강조하고 동영상 등을 통해 농가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번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유제품과 육류는 채식식단에서는 섭취할 수 없는 천연 비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으며, 영국의 낙농 및 육류업계는 세계적인 수준의 식품생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출처 : ahdb.org.uk, 9월 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